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장수경찰서 치안현장 방문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치안감)이 5일 장수경찰서(서장 정덕교) 치안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치안현장 방문은 장수군민에게 따뜻하고 공정한 경찰이 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방문했다. 또한 평온한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김희태 경감(장계과출소), 양현규 순경(통합수사팀), 김선민 순경(경무계)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자신이 왜 경찰이 되었는지에 대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앞으로의 남은 경찰생활 보람있게함으로써 국민들이 원하는 경찰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경찰서, CCTV 관제요원에 감사장 전달

김제경찰서(서장 김영록)는 5일 오전 세밀한 CCTV 관제를 통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한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감사장을 받은 이씨(여)는 지난 3일 00:33경 김제시 삼산길 일대 인근 CCTV 영상에 상가를 배회하면서 상가를 쳐다보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며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감지하고 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및 관할지구대로 신고하여 범죄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김영록 김제경찰서장은 "안전한 김제를 위해 24시간 밤낮 없이 CCTV모니터링으로 경찰의 눈이 되어준 관제요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창경찰서, 생명존중 문화조성 위한 교육 실시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 직원 대상으로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밀도 높은 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은 2018년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복지부)에 경찰관, 소방관 등을 트라우마 위험 등으로 자살률이 높은 특수직 공무원으로 지정(2016~2020년 공공무원 대비 자살률 2배 이상)되었다. 이날 교육은 동료생명지킴이 강사로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김선홍을 초청하여 평소 직원들의 마음 건강 관리 방법 및 자살 예방 교육 등 심도있는 강의로 직장 내에서 간과해선 안 될 사항, 요청사항 등을 주문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진안군 애향본부, 인구감소 대응 발벗고 나서

읍면 순회설명회 통해 주소갯기 자발적 동참 분위기 조성 ·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활동 추진

진안군 애향본부(본부장 우태만)가 인구감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군 인구시책 홍보를 통한 인구 늘리기 참여 유도를 위한 애향운동 순회 설명회에 나섰다.

지난 4일 주천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읍면 이장을 대상으로 진안군 인구 현황에 대한 설명과 주요 인구시책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고 인구위기 인식 공유 및 '생활인구 진안애 주소갯기' 운동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제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기부자 혜택 등을 안내하며 자발적 주소 갯기 및 고향사랑기부를 연계하는 등 군민 애향심 고취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태만 본부장은 "지역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단체로서 진안군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순회 설명회를 적극 추진하게 됐다"며 "관내에 거주하지만 주소를



두기 어려운 경우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한다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구위기 인식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생활인구 진안애 주소갯기' 릴레이 협약을 통해 인구늘리기의 범군민적 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한 결과 지난 2월과 3월 각각 92명, 58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경찰서, 경목회와 차담회 가져

김제경찰서는 5일 경찰서장 집무실에서 김영록 서장을 비롯한 경목 최성규 목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담회를 열었다.

차담회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 상호 상견례 및 김제시민의 평온한 삶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경찰치안의 시각 지대로 가정내 문제, 이로운 청소년 탈선 등 상담이 절실히 필요한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할 것을 서로 협력하며 간담회를 끝맺었다. 이날 참석한 경목회장 최성규 목사는 김제경찰서 직원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더불어 김제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서장은 "경목회 목사님들의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 김제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최선을 다 할 수 있겠다"고 화답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즐거운 노후생활' 임실교회 부설 은빛경로대학 개강

임실교회 부설 은빛경로대학(학장 송희중) 개강식이 지난 4일 입학생 100여 명과 이민숙 임실 부군수를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교회 100주년 기념 예배당(분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대학장 환영사, 기관장 축사, 경로대학 학사 일정 안내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송희중 학장은 "노인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를 사귀면서 행복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열어가기시길 바란다"며 활발한 대학 생활을 당부했다.

이민숙 부군수는 "대학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즐기는 노년 생활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임실군에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임실을 만들고자 복지 정책 지원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교회 부설 은빛경로대학은 2007년도부터 시작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건강관리, 학생들 간의 정서적 교류로 대인관계 능력과 신체적·정서적 관리 능력 향상으로 지역사회 내 올바른 어르신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노인대학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방법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수요자가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와 정보 등을 안내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및 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기로, 소화기는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죽산면 지사협, 사랑의 밑반찬 나눔

김제시 죽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강대권, 민간위원장 박영석)는 5일 위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건강 밑반찬 3종 세트(소고기장조림, 깍두기, 미니리무침)와 제철 과일을 관내 70세대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 특화사업은 죽산면과 면 협의체가 민·관 협력으로 2018년부터 해마다 밑반찬을 조리하여 대상자 가정에 전달하며, 균형 잡힌 밑반찬 제공으로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이웃과 유대 관계 형성을 통해 정서적 안부 확인 및 취약계층 돌봄 기반 마련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건강과 면역력이 중요시되는 이 날, 생활의 어려움과 끼니를 걱정하는 지역주민에게 손수 준비한 밑반찬을 전달하며 따뜻한 소통을 이어갔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소방서, '불 하트' 화재위험 주의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최근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유행 중인 '불 하트 챌린지' 시 화재 발생 위험성이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불 하트 챌린지'란 청소년들이 기념일 등을 인증하기 위해 눈 스프레이로 하트 등을 그리고 불을 붙여 태우는 놀이로 틱톡·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와 각종 미디어를 통해 10대와 20대에게 유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눈 스프레이는 프로판, 에탄올 등 인화점이 낮은 물질을 사용해 만든 것으로 불이 쉽게 붙어 해외에서는 생일파티에서 촛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 스프레이를 분사해 급격한 연소로 사람이 화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 불 하트는 불법이 아니지만 불 하트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형법에 따라 단속실화되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중실화되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Table with 4 columns: 지역 (지역지사),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Includes entries for 전주, 중양, 남원, 임실, 삼천, 송천, 남원, 정읍, 순창, 고창, 부안, 무주, 호지, 익산, 고창, 고창.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Earth's warmest place' featuring a polar bear and text: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